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5월

선교편지 제 110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강변을 따라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바카카'는 모슬렘권 지역입니다. 약 1,000여 가구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마을 내에 모슬렘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모스크'가 4곳이나 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 공터가 있고, 마치 나이트 모양처럼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마을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마을 중앙 공터 주변에 '바카카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약하지만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과도 가까워 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마침내 금년 3월에 이슬람권 사역에 헌신된 현지 교역자를 합류시켜, 좀 더 적극적으로 바카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4명의 현지 교역자와 함께 한마음으로 동역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카카 교회 건물(?)은 작년말 홍수로 인하여 거의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어른 어깨 높이 만큼이나 물이 범람하여 교회가 잠겨 낙망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선한 손길'을 통하여 큰 힘을 얻어서, 이제는 도리어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모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손상된 교회 벽을 벽돌로 개량을 하려고 했지만, 교회 땅을 소유한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외관은 새 대나무 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교회 실내는 새로 부임한 현지인 교역자가 거주 할 수 있도록 메자닌 (Mezzanine)을 개조하여 아늑한 방을 만들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살림살이도 장만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공동 수도나 펌프, 그리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교회 내에 협소 하지만 자체 '수도와 화장실'을 설치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어린이 사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집기들도 새롭게 장만을 하고, 바닥에는 장판을 새로 깔고, 페인트 칠도 해서, 작년의 어두운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전과 같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는 어린이 사역이 끝날 즈음에 저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와서 함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현지 교역자와 함께 진용을 갖추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바카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진행했던 어린이 사역을, 이제는 나이별로 어린이와 학생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시간을 달리하여 수준에 맞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별도의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기타 렛슨'도 시작하여, 누구든지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또한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마을 주민들을 향한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로부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 중에서 매일 교회를 오고, 가며 인사를 나누었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토요 교실'을 개설 하였습니다. 매주 약 15명 정도의 주부들을 모아서 가사에 보탬이 될만한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연지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귀고리, 목고리, 팔찌등을 만들고 있는데, 참여하는 모든 주부들이 마치 소녀처럼 얼마나 즐거워 하는지 모릅니다. 외형적으로는 직업학교 또는 취미학교 정도로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주부들이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약 열흘 전에, 바카카 마을에 모슬렘 청년들과 카톨릭 청년들간에 칼을 휘두르며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 되었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또한 마을 안에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민망함을 넘어서, 참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저 가난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바카카 마을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여러 모양으로 심령을 황폐케 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임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카카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 학생들, 또한 어른들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이 지역에 빛과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살후 3:3)





계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상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특히 4, 5월은 더위에 익숙한 이곳 사람들도 쉽게 지치는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할 때는 여분의 셔츠와 손수건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실 물도 충분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 때를 맞추어 모든 공립학교들이 방학을 시작하는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더위 때문에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실제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방학 기간 중에는, 어린이 사역에 참여하는 숫자가 다른 때와 비교가 될 정도로 현저히 줄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의 침체가 예상되는 4,5월을 앞두고 사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특별 교통편 (트라이시클)을 운행하기도 하고, 각종 상품과 선물도 푸짐하게 나누어 주고, 간식에도 더위를 식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얼음과자 (쭈쭈바?)'가 추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집 냉장고는 아이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불법 얼음 과자 공장과 같이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3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 학교 (VBS)'를 개최 하였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10여명의 교사를 모집하고, 주제를 정하고, 교재를 만들고,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는 가운데 거의 한달여 기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모두 자체 개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종이를 사서, 자르고, 붙이고, 손으로 쓰고, 그려야만 됩니다. 교재, 명찰, 리본, 성경 암송표, 상장,.... 이 모두를 10여명의 교사들이 밤까지 세워가며 손으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을 사서 하면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그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사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도울 것을 찾는 몇몇 남 집사님들은 매일 교회를 청소해 주었고, 여 집사님들은 교사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 주어서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마치 이미 승리를 한 것처럼 모두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얼굴들 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7)

아이들이 무더위 가운데 교회에 오기 불편하지 않도록 아침부터 트라이시클이 부지런히 마을과 교회를 오고 갑니다. 새롭게 단체 티셔츠를 입은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가운데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 되었습니다. 약 90여명의 어린이들을 나이에 따라 4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알아 가며, 체험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한 것 이상으로 잘 진행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한 '얼음 과자'도 모든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참여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겔 31:7)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지역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Bank Account: Chase Bank / Account No.: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76 1st St. Apt 1K / Mineola, NY 11501-2366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